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만왕의 왕 내 주께서 / 주의 이름 높이며 / 승리하였네 / 예수 아름다우신	다같이
대표기도		김경운
*성경봉독	고전 15:19-26	김나혜
말씀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김상범 전도사
응답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전도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권면과 기도		김상범 전도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둔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 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전 15:19-26)

19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1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22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23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24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 때는 그 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25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26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기쁨의 부활절입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두 사역이요, 서로 뿔레야 뿔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죽음, 대속과 같은 어두운 이미지라면, 부활은 승리, 환희와 같은 밝은 이미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십자가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서 항상 함께 묵상해야 하는 두 가지 큰 테마입니다.

부활이 빠진 십자가는 결론 없는 스토리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의 문제의 해결되었지만, 완전한 화해와 회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인류회복의 역사를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야 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증인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교회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부활”이 내포한 영적 의미를 함께 살펴봅시다. 우선, **부활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단계가 “소망”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간단계일 뿐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지상에서 누리고,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모습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곳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영생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개인적 측면) 부활 신앙이 완전히 내면화 된 신앙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입니다. (히 11:38)

또한, 부활신앙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세계관적 측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상을 덮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선의 회복만이 아니라, 악의 영원한 징벌도 함께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그냥 두시나요?” 라는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악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종말 때 하나님은 겸손과 순종의 왕이신 주님을 통해 악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도기입니다.

그럼, 진정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활 소망을 깊이 내면화**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런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Already, not yet**’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서, 교회에서, 주의 백성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의 삶이 애벌레의 삶이라 해도,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나비로 사는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답게 정말 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례)

우리는 현실의 각박한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말씀산책

살아갈 지를 고민하고 실천해 내야 합니다. 이 갈등과 고민은 우리가 평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대장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참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잘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는 내가 부활체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나요? (개인적 측면)
2. 나는 주님이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실 것을 믿나요? (세계관적 측면)
3. 우리가 부활 신앙을 실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훈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YouTube 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가급적 현장예배 참석을 권장드립니다.
당분간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소망합니다.

EM(Lifeway) 후원 기금 마련 세차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WAKE 종강예배

4월 18일 (월) 오후 7시, WCP Auditorium

성경 세미나 “레위기와 함께 하는 말씀 산책”

강사: 김경열 목사 (“드라마 레위기” 저자)

일시: 5월 12일(목)~15일(주일)

(목, 금: 저녁 7시 / 토: 오후 130, 저녁 7시 / 주일: 장년 1, 2부 예배시간)

청년 워십 나잇 (청년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7시

일대일 제자 양육 동반자반 모집

양육기간: 총 16주

중고등부 교사 모집

성경공부가 영어반과 한글반으로 진행될 예정
다음세대 신앙 교육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PSALM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매월첫주제외)

정기리더모임

매월 첫주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제 50권 16호

APRIL 17
2022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전도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안혜진

anhyejin0714@gmail.com

새가족 팀장

하지수

jisujeon2015@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